

큐레이터 여러분께,

Section 2 도시 배경 사진 부분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.

안기현 선생님이 카톡에 올린 흰벽바탕의 사진 레이아웃은 이전의 붉은/검은 바탕위에 배치한 것에 비해 밀도가 낮고, 사진 사이의 간격이 넓어 용적률 게임이 벌어지는 치열한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렌더링으로 보는 것이라 현장의 느낌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.

이 부분과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.

정연두, 강성은, 백승우 작가의 배치와 달리, 신작가의 역할과 위치는 앞의 세 분과 출발부터 달랐습니다. 앞의 세분은 Section 4에 속하고, 신작가님은 Section 2에서 건축물의 도시 맥락을 보여주는 배경 자료의 역할을 일정 부분하는 것을 시작된 것입니다.

따라서 사진의 크기와 배치는 신작가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, 결정은 전시의 핵심인 중앙공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우리 큐레이터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즉 신작가 개인 전시 섹션이 아닙니다.

정이삭 소장님이 이점을 분명히 하고 신작가님과 의견을 나누어주시고, 어려우시면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. 작가를 최대한 존중하지만, 전시장 레이아웃은 우리의 몫이기에, 우리 전시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목표에 역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.

김성홍드림